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려가 전하는 새해 인사말

2018년은 무술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내 집같이 내 가족같이’ 어르신들을 모시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하였던 2017년을 어르신들과 함께 무사히 보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포항고려요양병원과 고려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꽃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8년은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포항고려요양병원, 고려요양병원 임직원 일동

2018년에도 고려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해주려고 추위들이 반겨주러 몰려왔네요.

어느덧 2018년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2주기 인증준비로 분주했었고, 직원행복 및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EH-QPS 경진대회로 또 한 번 화합의 장을 열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한 해가 정말 바쁘게 지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미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하고 지난날의 즐거움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지난 시간의 상처는 아물고, 지난 한 때의 후회되는 일은 미래의 큰 화를 막아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발전되고 행복한 2018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정들었던 2017년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쉬우면서도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별은 곧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든 한 해가 떠났더라도 새로운 한 해와의 정을 쌓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2018년도에도 어르신들이 즐거운 병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높은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즐거운 병원생활을 위해 모두가 함께 2018년도를 위해 또 다시 뛰어보려 합니다.

2018년도는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과의 시작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항상 함께해온 우리의 인연들과는 항상 앞으로 전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병원가족여러분들 을 한해는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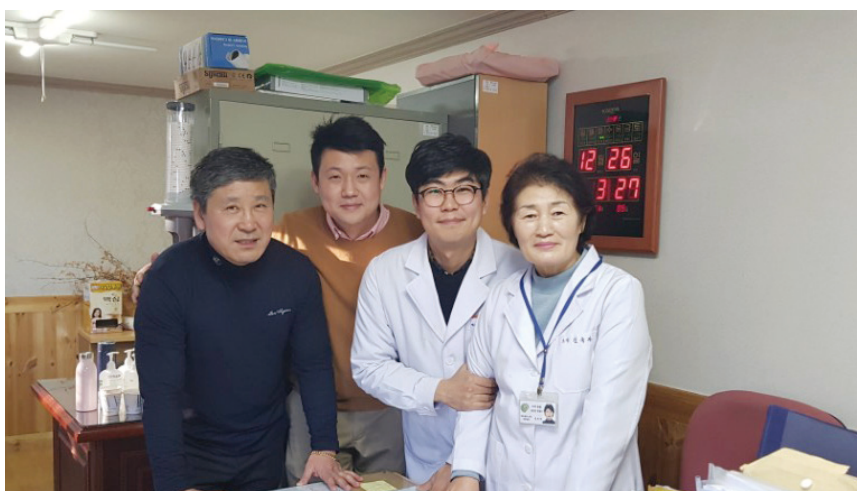
- 글 : 김미희 (고려요양병원, Q전담간호사)



2018년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고려 스태프로 인사드립니다.
무술년에는 기분좋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한해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내 가족 같이 최선을 다해 간호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오는 2018년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에도 맡은 자리에서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최선을 다하시어 최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하세요!

네잎 클로버

나는 오늘도 꿈을 찾아 떠난다.
작은 수풀속에 오롯이 숨어 앓은 너를 찾으려
나는 오늘도 희망을 찾아 떠난다.
아침 이슬을 가득 머금고 내게 밝은 미소를 주는 너를
나는 오늘도 사랑을 찾아 떠난다.
여러 세잎 클로버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손에 꼬옥 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

나는 오늘도 추억을 찾아 떠난다.
너를 예쁘게 펴서 책갈피에 반듯이 누이고서는
누구에게 추억을 선물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 한다.

오늘도 나는 꿈, 희망, 사랑, 추억을 찾아 떠난다.
너는 늘 내게 숨바꼭질을 주저하지 않는다.
꼭 꼭 숨어서 너는 또 오늘도 내게 두꺼운
책갈피 속에서 내년을 기약하며 방긋 웃어보인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도 알려 주려는 듯이
너는 책갈피속에서 2018년을 기다리게 한다.
2017년 한해도 너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너무 너무 고마웠다고...
내년 봄 이인리 논두렁에서 또 만나자.
네잎클로버야...

- 시 : 최영미(고려요양병원, 1병동 간호팀장)

여러분들이 2018년을 이끌어 갈 고려의 미래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학칼럼] 죽음을 보는 시선



포항고려요양병원 최영관 병원장님

요양병원에 근무한지 5년이 되었다. 의사가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요양병원 근무 5년 동안에 훨씬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경험하였다.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반복 되는 죽음 앞에, 죽음 자체가 일상적인 일로 여겨질 때가 간혹 있어서 스스로 놀라며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를 때가 있었다.

의사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죽음의 순간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죽음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질까봐 심히 걱정된다. 우리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타성에 잘 물드는 인간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일상적인 일로 각인되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수가 종종 있게 된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의 일인 양 여겨진다면, 또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착각한다면,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자칫 흐트러질 수가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아니, 생각하지를 않는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존재한다. 나에게도 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자각한다면, 어르신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숭고해져야한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들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그분들의 삶에 경외심을 갖고 행동해야하며, 주검까지도 경건한 마음과 행동으로 대해야한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삭막한 사무적인 일처리로 보호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으로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칠팔십년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하면서 의미있게 보람차게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우리병원 직원들이 되어야한다. 우리병원의 슬로건처럼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것이다. 정유년 세모에서서, 치료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경외심으로 존중한다면, 무술년의 새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병원의 앞날에도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018년 1월부터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실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포항고려요양병원과 고려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었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신 본인부담금을 내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의 결정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2017)			
구분		2016년	2017년
1단계	1분위	1,210,000	1,220,000
2단계	2~3분위	1,520,000	1,530,000
3단계	4~5분위	2,030,000	2,050,000
4단계	6~7분위	2,540,000	2,560,000
5단계	8분위	3,050,000	3,080,000
6단계	9분위	4,070,000	4,110,000
7단계	10분위	5,090,000	5,140,000

기준보험료(2016년)			
구분		기준보험료	
단계	분위	연평균 지역보험료 구간	연평균 직장보험료 구간
1단계 (121만원)	1분위	10,050원 이하	34,420원 이하
2단계 (152만원)	2~3분위	10,050원 초과 ~ 26,760원 이하	34,420원 초과 ~ 50,110원 이하
3단계 (203만원)	4~5분위	26,750원 초과 ~ 60,380원 이하	50,110원 초과 ~ 72,290원 이하
4단계 (254만원)	6~7분위	60,380원 초과 ~ 114,030원 이하	72,290원 초과 ~ 109,480원 이하
5단계 (305만원)	8분위	114,030원 초과 ~ 151,760원 이하	109,480원 초과 ~ 141,440원 이하
6단계 (407만원)	9분위	151,760원 초과 ~ 204,200 이하	141,440원 초과 ~ 192,780원이하
7단계 (509만원)	10분위	204,200원 초과	192,720원 초과

(2018년도 일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조

본인부담상한액의 지급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방법이 있다.

□ 사전급여란?
동일요양기관에 동일기간(해당년도) 입원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2017년 기준 5,14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환자는 5,140,000원 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한다.

□ 사후급여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한다.

- 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_세대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_가입자 보험료 기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려요양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글 : 이동산 (고려요양병원, 행정부장)

2017년 어르신들을 위한 성탄절 기념행사

2017년 한해를 보내면서 적적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심신의 안녕과 활력을 더하여 생기가 약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시절 한 때를 보낸 성탄을 회상하며, 추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2017년 12월 22일(금요일)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원 직원들이 함께 단합하여 기획 및 진행을 하여 또 한번 고려요양병원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짧은 시간 준비하였지만 모든 직원들이 무한한 재능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미리 노래연습을 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시니 많이 떨렸다고 하시면서도 평생 추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좋아하셨다.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은 내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성탄절 행사를 기대한다고 하시며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병원생활을 하시자 다짐했다.

- 글 : 서울해(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사랑의 배터리로 언제나 건강하세요~



어르신과 신나는 율동과 함께 노래를...



어르신과 함께 신명나게 노래 열창!!!



크리스마스 올래 노래와 함께 춤을...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타할아버지가 어르신들께 선물드리러 왔어요~

어르신의 편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두서없는 글이 되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0년 평생 병원 한 번 가본 적 없이 건강하게 지내신 할아버지께서 83세 되는 해 치매 증세가 와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연약한 저로서는 도저히 간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해서 고려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자하신 부장님의 전화 한통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길이라 서먹서먹했는데 경비하시는 아저씨께서 친절히 안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후 저는 매일같이 오곤 했습니다. 저를 태워다 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곳을 궁궐 같은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의사선생님, 소장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손님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루에 천 번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환자들의 이발, 손톱, 발톱 등을 손수 깎아 주시며, 출퇴근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죠. 복지사 선생님은 고맙게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해주십니다. 하루는 원장님께서 저에게 병원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같이 높이신 원장님께서 별도로 특별한 식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손수가지고 오셔서 드시길래 저는 한참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뵈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5년 할아버지께서는 생로병사란 말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나 또한 적지 않은 나이다보니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아 힘이 들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중지도에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만, 몸이 불편한 곳은 치료도 하고 모든 것을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또한, 저는 나중에 자녀들이 마음 슬퍼 할까봐 스스로 미리 고려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전망도 좋을뿐더러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아 모든 병이 예방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포항역이 있어서 앞산을 바라보면 KTX 기차도 하루에 몇 번씩 본답니다. 그리고形形色색 닭들도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요. 이곳 장독대에는 무려 48개나 되는 큰 항아리에 봄이 되면 깨끗한 메주와 맑은 물로 장을 담아 우리에게 식사 제공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이 글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호사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잘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사 같은 간호사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잘 치료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 어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지냅시다.

- 글 : 고려요양병원에서 김할머니가

인생길

제 아무리 예쁜 꽃도
만계가 되면 지고,

푸른 수목도 계절이 가면
붉은색 노란 색으로 변해
낙엽으로 툭툭 떨어지고,

동해바다파도처럼
밀려오고는 다시가고,

나그네 가는 길은
뜬구름 같구나.

가도 가도 수말리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

그러나
저만치 갈 곳이 보이는 곳이 있다네,

경북 포항시 달전 이일리에 고려요양병원에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네.

- 시 : 정*순 어르신

2018년 1월 2일 고려라운지 도서관 개관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려라운지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책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고 잠깐의 여유를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도록 직원들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한 것이다. 다양한 서적들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추가로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오니 직원들의 많은 이용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글 : 이준엽 (고려요양병원, 기획실장)

1월 생신자 명단

이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박정옥님		01월 15일
이동주님		01월 18일
정윤수님		01월 12일
이현숙님	11월 23일	01월 09일
정진연님	11월 28일	01월 14일
김필옥님	11월 27일	01월 13일
박만진님	11월 28일	01월 14일
서복순님	11월 24일	01월 10일
도증주님	11월 29일	01월 15일
노귀택님	11월 29일	01월 15일
박종규님	11월 20일	01월 06일
김남덕님	11월 27일	01월 13일
김필생님	11월 23일	01월 09일
손윤이님	11월 29일	01월 15일
황복금님	11월 28일	01월 14일
박칠경님	12월 02일	01월 18일
한갑수님	12월 09일	01월 25일
박영숙님	12월 08일	01월 24일
오효숙님	12월 14일	01월 30일
서기숙님	12월 06일	01월 22일
박기환님	12월 01일	01월 17일
전해중님	12월 10일	01월 26일
김명술님	12월 12일	01월 28일
백순노미님	11월 20일	01월 06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김희숙	진료부		01월 28일
이동우	원무행정과		01월 27일
김미희	원무행정과		01월 15일
박은경	간호팀(1병동)		01월 21일
한정임	간호팀(1병동)		01월 23일
이은정	간호팀(3병동)		01월 28일
추영선	간호팀(3병동)		01월 11일
김동숙	원무행정과	11월 20일	01월 06일
이용숙	영양팀	11월 24일	01월 10일
김정숙	간호팀(1병동)	11월 15일	01월 01일
박외성	간호팀(1병동)	11월 15일	01월 01일
강명남	간호팀(3병동)	11월 24일	01월 10일
윤영순	요양서비스	11월 23일	01월 09일
이상백	요양서비스	12월 10일	01월 26일
곽점숙	요양서비스	11월 22일	01월 08일

병원 안내



달전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Tel. 054-262-2022



포항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73-2
Tel. 054-241-1011

고려요양병원의 이야기는 인터넷 / 모바일로도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hojunfoundation2009>